



# ‘첫 역사’ NC vs 두산 ‘왕좌 수성’ 격돌... 오늘 코리안시리즈

두산, 6년연속 한국시리즈 진출 ‘이기는 법 알아’

NC, KS직행 체력비축 ‘이점’... 두산에 설욕 노력

NC 다이노스의 새 역사 창조일까, 두산 베어스의 왕좌 수성일까.

NC와 두산이 2020 가을야구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두 팀은 17일 오후 6시30분 고척스카이돔에서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1차전을 갖는다.

2011년 프로야구 9번째 구단으로 출발, 2013년부터 1군에 모습을 드러낸 NC는 8시즌 만에 처음 정규시즌을 제패하고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NC의 한국시리즈 진출은 두 번째

다. 2016년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를 거쳐 마지막 관문에 안착한 NC는 두산과의 4경기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4연패로 물러났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4년 전과 달리 곧장 한국시리즈로 향해 선수단의 체력 소모가 전혀 없다.

10월31일 KIA 타이거즈와의 정규시즌 최종전 이후 보름 넘게 실전을 치르지 않아 감각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다.

언제 다시 찾아올 지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NC는 드류 루친스키, 마이크 라이트, 구창모, 송명기로 이어지는 4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계획이다.

순번은 바뀔 수 있지만 이들이 선발 마운드를 책임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반수는 라이트와 구창모의 몸 상태다. 라이트는 막판 무릎 통증으로 구위가 현저히 떨어졌고, 구창모는 팔꿈치가 좋지 않아 후반기를 거의 통째로 날리다시피 했다.

‘가을의 주인’이 되려면 두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찾아야 한다.

타선은 두산에 밀리지 않는다. 프로야구 최초 같은 팀 3명 이상 30홈

런-100타점의 진기록을 합작한 나성범(34홈런 112타점)-양의지(33홈런 124타점)-알테어(31홈런 108타점)는 이들의 최대 무기다.

나성범은 “각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준비를 잘 했을 것”이라며 “나도 잘 준비했다. 보여줄 일만 남았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리그 최고 포수이자 오랜 기간 두산에 몸담아 타자들의 성향을 들여다보고 있는 양의지는 든든한 존재다.

양의지는 2010년 두산 주전 포수로 발돋움해 2018년까지 두산의 안방을 지켰다.

이동욱 NC 감독은 “양의지가 시즌 때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두산은 준플레이오프(LG전 2승)와 플레이오프(KT전 3승1패)를 거쳐 NC의 파르너가 됐다.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사기만듬은 최고조다.

두산이 가장 믿는 구석은 크리스 플렉센-라울 알칸타라로 이어지는 원투펀치다.

알칸타라가 KBO리그 유일한 20승(2패) 선수로 정규시즌을 책임졌다면, 포스트시즌의 에이스는 플렉센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플렉센은 LG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6이닝 4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투로 화려한 가을 데뷔를 알렸다.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는 10%이닝 5피안타 13탈삼진 2실점 평균자

책점 1.74의 빠른 기록으로 시리즈 MVP까지 거머쥐었다.

3. 4선발은 NC에 밀리지만 두 선수가 책임질 4경기만 확실히 잡는다면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5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치른 주축급이 대다수 남아있다는 점도 자신감의 원천 중 하나다.

큰 경기 경험이 많다는 것은 대처 능력이 상대보다 뛰어나는 이야기로 된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감독으로서 자신감이 있다”며 “부담보다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최다 우승·최고 승률팀은 KIA... 한국시리즈 이모저모

KIA, 한국시리즈 10연승 팀 최다 연승 기록도 보유



2017년 10월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한국시리즈 5차전 KIA 타이거즈 대 두산베어스 경기, KIA가 7대6으로 한국시리즈를 우승 후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이 우승 모자를 던지고 있다.

2020시즌 프로야구 왕좌의 주인 공을 가리는 대망의 한국시리즈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해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NC 다이노스와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두산 베어스가 17일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패권을 놓고 맞붙는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의 한국시리즈도 어느덧 38번째를 맞이한다. 40년 가까운 역사 동안 한국시리즈와 관련된 각종 진기록도 쌓였다.

◆ 최다 우승·최고 승률팀은 KIA... 삼성은 최다 준우승팀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정상에 오른 팀은 KIA 타이거즈다. KIA는 해태 타이거즈 시절을 포함해 통산 11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준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1번의 우승 중 무려 9번이 KIA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나왔다. 그 시절의 해태는 가을야구에서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해태는 1986년 한국시리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왕조의 서막을 알렸다.

당시 전기리그에서 2위, 후기리그에서 2위에 올라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해태는 5전3선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했다.

1986년을 시작으로, 해태는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정상에 섰다. 7전 4선승제의 한국시리즈에서 1987년에는 삼성을 4연승으로 꺾기도 했다. 1988년과 1989년에는 빙그레 이글스(현 한화 이글스)를 물리치고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해태는 1991년 정규시즌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빙그레를 4연승으로 꺾고 2년 만에 패권을 되찾

았다. 1992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지만, 1993년 다시 한국시리즈에 올라 삼성을 7차전 승부 끝에 물리치고 우승을 맛봤다.

해태는 1996~1997년에도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팀명이 KIA 타이거즈로 바뀐 뒤에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우승을 거머쥐었다. 2009년에는 7차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SK 와이번스를 꺾었고, 2017년에는 두산을 4승 1패로 물리치며 8년 만에 우승을 일궜다.

KIA는 역대 한국시리즈 최고 승률 팀이기도 하다. 한국시리즈에서 59경기를 치른 KIA는 44승 2무 13패, 0.772의 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시리즈 팀 최다 연승 기록도 KIA가 보유하고 있다. KIA는 1986년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1988년 한국시리즈 3차전까지 10연승을 달렸고 이 기록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한국시리즈 최다 준우승 팀은 삼성이다. 총 17차례 한국시리즈를 치른 삼성이 한국시리즈를 거쳐 우승을 차지한 것은 7번 뿐이다.

1980~1990년대 삼성은 매년 준우승 팀이었다. 이 시기에 삼성이 우승한 것은 1985년이 유일했는데, 당시 전후기 리그에서 모두 우승해 한국시리즈를 거치지 않고 우승팀으로 결정됐다.

삼성 1982년 첫 한국시리즈에서 OB 베어스에 1승 1무 4패로 밀려 우승을 놓쳤고, 1984년에는 롯데 자이언츠와 7차전까지 가는 승부를 펼친 끝에 석패했다.

1986~1987년에는 2년 연속 해태에 발목을 잡혔다.

1990년 한국시리즈에는 상대가 LG 트윈스로 바뀌었지만 역시 결과는 준우승이었다. 삼성은 1993년 한국시리즈에서도 해태에 2승 1무 4

패로 밀려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 기간 삼성은 한국시리즈 팀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 기록을 썼다. 삼성은 1986년 3차전부터 1993년 1차전까지 한국시리즈 12경기를 내리 졌다. 이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삼성 1999년 우승의 한을 풀 것은 2002년이다. 2001년 8년 만에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은 삼성은 두산에 2승 4패로 밀려 역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지만, 2002년에는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뒤 LG를 4승 2패로 누르고 무려 17년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만년 준우승 팀의 오명을 벗은 삼성은 2005~2006년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2011~2014년에는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일구며 왕조를 건설했다.

◆ 최다승은 ‘가을까지’ 김정수 불멸의 기록 KS 4승 최동원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등판한 투수는 배영수다. 배영수는 한국시리즈에서만 통산 25경기에 등판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에서 한국시리즈 24경기에 등판했고, 두산 베어스에서 뛰던 2019년 한국시리즈 4차전에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은 ‘가을까지’ 김정수다. 가을야구 무대에서는 ‘국보’로 불리던 선동열 만큼이나 강한 모습을 보이던 김정수는 한국시리즈에서만 통산 7승을 거뒀다.

김정수는 1986년 3승, 1987년 2승, 1988년과 1989년 각각 1승씩을 거두며 ‘해태 왕조’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김정수는 한국시리즈 통산 최다 경기 등판 2위에 올라있기도 하다. 김민희기자

## 임성재, 마스터스서 준우승

임성재(22)가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임성재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를 쳐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친 임성재는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임성재는 역대 마스터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아시아 선수로 역사에 남았다.

임성재는 마지막 날 역전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4년 최경주가 기록했던 3위의 성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세계랭킹 1위 디스틴 존슨(미국)은 마스터스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존슨은 마지막 날 버디 6개, 보기 2개를 쳐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 성적은 20언더파 268타로 종전 최저타 기록(18언더파 270타)을 갈아치



임성재(22)가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달러) 4라운드에서 공동 2위에 올랐다.

왔다. 존슨은 2016년 6월 US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메이저 대회 두 번째 왕좌를 차지했다. 우승상금은 207만달러(한화 약 23억 원)를 받는다.

존슨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3승이자, 통산 24승을 달성했다. 김민희기자

## 삼성, 윤성환 자유계약선수로 방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베테랑 우안 투수 윤성환(39)을 방출했다.

삼성 구단은 16일 “윤성환을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는 윤성환은 올해 8월21일 SK 와이번스 전 이후 1군 뿐 아니라 2군 경기에도 등판하지 못했다.

홍준학 삼성 단장은 “윤성환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윤성환이 구단의 은퇴 제안을 거절했다”며 “프랜차이즈 스타인 만큼 방출명단에 넣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서 이달 25일 보류선수 명단에 제외하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져 방출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삼성 베테랑 투수가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현재 잠적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성환은 구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 단장은 “조금 전에 윤성환과 통화했다. 도박을 한 적도 없고, 잠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채무가 있기는 하지만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민희기자